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실상 합의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미전력 지휘 연합사령부 구성 北 핵사용 징후 포착땀 선제 대응 '맞춤형 전략' 완성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 협의를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론짓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대응 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양국은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현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

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연기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달부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하는 공동실무단을 가동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회견에서 "양국은 심각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 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

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의 이날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해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대응 전력과 억제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승인

했다. 이 개념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맡아 미군 전력까지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계획이다.

한편 헤이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가 각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 상호공유 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가

민주 전남도당, 내일 순천대서 정책토론회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는 4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2014년 전남지역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내년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제 설정 및 정책개발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

해 마련됐다.

양승조 최고위원(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과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이낙연·주승용·유윤근·김영록 의원, 노관규 순천·곡성지역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초의원, 당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경중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조례 발의

송경중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2일 시의회와 (사)한국학 호남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제안법안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고(古) 문명과 서화 등 호남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문화수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야권·시민단체 반대 총돌 부상자 잇따라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가 중단된 지 126일 만에 2일 오전 재개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290여 명의 인원과 건설장비를 투입해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아마을과 동화전마을, 상동면 도곡리, 부북면 위양리 등 5개 송전탑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오후 들어서는 헬기 3대로 발전기와 각종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 공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한전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여 개 중대 2000여 명을 배치, 반대 주민들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765kV 송전탑 건설공사 4공구 현장 앞 도로변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에서 문정선 민주당 밀양시 의원이 손과 목에 노끈을 묶은 채 울먹울먹하며 말하기를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공권력의 보호 아래 공사가 재개되자 곳곳에서 반대 주민과 경찰, 한전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잇따랐다. 단장면 바드리아마을의 일부 주민은 목에 쇠사슬을 묶은 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반발해 조성재 신부(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상임대표), 환경단체 대표, 주민 2명 등은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속속 반대 투쟁에 합세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송전탑 현장을 다니며 투쟁 대열에 참여하거나 공권력 투입 실태와 주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민주 "MB, 4대강에 배 다닐수 있도록 지시"

임내현 등 "선박 통행하게 준설명령" 국토부 문건 공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 등 진상조사위 소속 이미경·윤후덕·박수현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2009년 2월16일 비서실장, 국토부 장·차관과 통석한 자리에서도 "하상준설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함께 공개됐다.

또한, 국토부가 이를 바탕으로 대운

하를 염두에 둔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문건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서 작성한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배길복원 도시 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 폭(50~100m확보)'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결정적 증거라고 이들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 등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주민 760만명 영양 실조

FAO 발표... 3명당 1명꼴

북한 주민 760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세계 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북한의 영양실조 인구는 전체의 31.0%인 760만명이다. 북한 기아 비율은 아시아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타지키스탄(30.2%)만이 기아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 기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4200만명으로, 2010~2012년 조사(8억6800만명) 때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12%에 달한다.

FAO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8명 중 1명꼴이 만성적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인구 5명당 1명꼴로 영양실조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기아퇴치 노력에도 대륙·지역별 격차는 심화하는 모습이다.

식량부족이 가장 심각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 기아 인구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24.8%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또한 기아퇴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아시아는 오히려 지난 1990년 이래 계속해서 영양실조 인구가 늘고 있다.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월 20만원 연금 지급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공식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을 10만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정보통신보안사업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직할.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